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 澈 秀
編輯人 申 澈 秀
印刷人 宋 永 哲



시조 장절공 경자년 춘향대제 봉행 (始祖 壯節公 庚子年 春享大祭 奉行)



2020년(庚子年) 춘향제를 3월 26일(목요일, 음력 3월 3일) 강원도 춘천시 장절공묘역에서 간소하지만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금년 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모임이나 행사 등을 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대중중은 전체 종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 향사에 참제하지 말도록 하고, 대중중 제례위원과 강원화수회 용철(龍澈)회장 및 제례위원 중 소수인원만 향사를 봉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향사일, 하늘은 청명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장절공묘역 전체에 서기(瑞氣)를 감돌게 하여, 향사(享祀)에 축복을 내리고 참제자들의 정성을 치하하는 듯이 장엄하게 빛나는 가운데, 향사의 준비와 봉행이 정성스럽게 진행되었다.

오전 10시 영당(靈堂, 壯節祠)에서 길순(吉淳) 도유사와 흥균(興均) 제례위원장이 분향의(焚香儀)를 행한 후, 오전 11시 시조묘소에서 초헌관에는 길순(吉淳) 대중중 도유사, 아헌관에는 동은(東銀) 강원화수회명예회장, 중헌관에는 현택(鉉澤) 춘천묘역관리소장, 집례는 흥균(興均) 제례위원장과 문철(文澈) 대중중제례위원, 대축은 현수(鉉洙) 강원화수회부회장이 분정되어 향사(享祀)를 봉행하였다.

향사의 봉행을 마친 후 길순(吉淳)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 향사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시조(始祖)님께서도 자손들의 건강을 걱정하시어 이해해 주실 것이며 평산신씨 종원들

께서 모두가 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지금의 코로나사태를 무탈하게 견뎌내시고, 10월 25일(일요일)의 추향제(秋享祭)에는 많은 종원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제(參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전체 참제자 약 30명의 조출한 춘향제를 마치고 점심 식사로 대중중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떡을 나누어 먹으며 화기에애한 담소의 시간을 가진 후, 가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작별을 하였다.

▶ 성금(誠金) 및 화환(花環) 내역 ◀

[성금 : 145만원]

- 밀직공파종중 100 정언공파종중 300 사간공파종중 100
- 판사공파종중 100 문희공파 오갑종중 200
- 문화공파 참의공종중 100 제정공파 봉례공종중 200
- 정언공파 상촌종중(동주) 100 도봉 현택 200 재일동포 순자 50

[화환] 서울사회수회장 1점

신임 대중중 도유사 고유제 (新任 大宗中 都有司 告由祭)



2020년 4월 16일 (목) 11:00 춘천 시조 묘역 장절사에서 대중중 신임 철수(正言公派 31世, 澈秀)도유사는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로 제한하고, 흥균 제례위원장이 집례를, 축문은 문철 제례위원이 맡았으며, 경기도화수회 현만회장과 강원도화수회 용철회장, 강원도화수회 동은 명예회장, 현목 제례위원, 대중중 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진행하였다.

都有司就任 告由文 (도유사취임 고유문)

維~檀君紀元四千三百五十三年 歲次 庚子三月丙寅 朔 (유~단군기원사천삼백오십삼년 세차 경자삼월병인 삭)

二十四日己丑 後孫澈秀 敢昭告于 (이십사일기축 후손철수 감소고우)

始祖高麗太師壯節公府君 伏以 (시조고려태사장절공부군 복이)

原任都有司任期滿了 依據宗規總會實施 (원임도유사임기만료의거종규총회실시)

猥濫不肖選任 平山申氏大宗中都有司 (외람불초선임 평산신씨대종중도유사)

切感重責專心致志宗務發展完遂所任 (절감중책전심치지종무발전완수소임)

以報蒙恩嘉納至誠施惠蔭助慈敢 (이보몽은가납지성시혜음조자감)

虔告謹告 (건고근고)

도유사 선출되어 취임함을 아뢰는 글

단기 4353년, 경자년 음력 3월24일 후손 철수는 시조 고려태사 장절공께 감히 아뢰옵니다

전임도유사가 임기만료 되어 종규에 정해진 바에 의거하여 총회를 실시 하였던 바 외람스럽게 불초가 평산신씨 대종중도유사로 선출 되어 임직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이 중대함을 절감하고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서 종무발전에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 선조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저의 지극한 정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음조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삼가 경건히 고하나이다.

第23期 大宗中 定期總會



대종중은 2020년 4월 9일(목요일) 오전11시에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한일장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위임받아 209차 상임유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2020년도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총회의 권한을 상임유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부도유사, 감사유사, 상임유사, 대의유사의 전체 임원 84% 찬성으로 결정하여 2019년도 결산 심의,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기가 만료된 도유사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였다.

상임유사회의 구성원인 정·부도유사, 감사유사, 상임유사의 총원37명중 3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장(도유사 吉淳)은 제209차 상임유사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국민의례를 한 후, 신임상임유사가 된 문철(文澈) 정인공과중중 도유사를 소개하고, 이어서 근택(根澤) 사간공과중중 도유사, 동은(東銀) 강원도화사회 명예회장, 현대(鉉大) 제정공과중중 도유사, 선균(善均) 이상공과중중 도유사, 현대(鉉大) 용산단중중 도유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도유사 인사말씀으로, “안녕하십니까? 신종코로나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부탁드려 죄송합니다만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무작정 연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대의유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동의를 구해 정기총회는 취소하고 총회의 권한을 상임유사회에 위임받아 도유사 판단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장의 소독을 철저히 하였고 손소독액, 마스크 및 장갑 등을 준비하였으며 8인석에 4명이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등 감염예방에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상임유사회에서 신임도유사가 선출되면 저는 6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대종중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며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협조와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새로 선임되는 도유사를 중심으로 합심 협력하여 대종중이 견실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동단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사말씀을 이만 줄이며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고 하였다.

회의순서에 따라 보고사항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 결산심의의 건은 권채(權彩)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신임도유사가 선출되면 사업계획과 예산을 재편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표결로 부결되었고, 법인세 등 세금 7억 원과 예비비 9억 원의 내역에 대한 설명요청에 대하여는, 7억 원은 의성임야 매각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산정하여 편성한 예산액이고, 예비비 9억 원은 신규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예상되는 계약금, 세금 등을 상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법인세 등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도록 담당 세무사무소와 협의 중이며, 예비비는 가장 좋은 조건의 신규 부동산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안 제3호 인천빌딩과 의성임야 매각대금을 합하여 대종중에서 신규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바, 신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추진과 결정을 도유사에 위임하는 안이 상정되어, 개의 안으로 “신규재산 취득의 권한을 도유사에게 위임하되 도유사는 재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유사가 신규재산 취득을 진행 한다“를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으며, 재산관리위원회는 신임도유사가 선출된 이후에 재구성하는 것이 지금의 재산관리위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의안 제4호 임원선임의 건이 상정되고 전례를 따라 도유사에 출마한 근택(根澤), 철수(澈秀) 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참석한 상임유사 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다. 감사유사 3명이 개표를 실시한 결과, 철수(澈秀) 후보가 제23대 대종중 도유사로 선출되었다.

철수(澈秀) 신임도유사는 인사를 통해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지난 선거전의 일들은 모두 잊고 합심하여 대종중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누구를 지지하였던가에 연연하지 말고 다수결의 민주주의 물에 따라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근택(根澤) 후보자는 철수(澈秀) 도유사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종사를 위해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인사로 답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평산신씨대종중의 상징인 대종중 종기(宗旗)를 길순(吉淳) 도유사가 철수(澈秀) 신임도유사에 인계하고, 감사유사는 현재의 감사 유사분들께서 훌륭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니 3명의 연임을 추천한다는 제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여 선임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2020년 평산신씨대종중 정기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209차 상임유사회의 폐회가 선언되었다.

이임사(離任辭)



존경하는 평산신씨 종원 여러분! 그리고 고문님과 명예도유사님, 또 경애하는 상임유사님과 대의원 여러분! 제가 6년간의 도유사 임기를 마치고 이제 물러나게 되어 종원 여러분들에게 이임(離任) 인사를 올리게 되었

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명을 받고 대종중을 맡아 운영을 시작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언 3년이 지나고 또 연임까지 6년, 긴 세월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종중의 존재 이유의 첫째가 조상을 잘 모시고 묘소를 잘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향사(享祀)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봉행(奉行)함은 물론 유적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 전임(前任) 도유사가 시작한 을미대동보(乙未大同譜) 발간 작업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2015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이어서 인터넷족보 한글화 번역사업도 시작하여 현재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

다. 과거에는 족보 하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대종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열람함은 물론이고 수단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먼 훗날 후손들이 조상의 사진이나 동영상, 묘소 사진도 볼 수 있도록 등재도 할 수 있게 종원들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대종중 재산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평산빌딩을 매각처리 하였고 의성임야도 고가에 매각하는 등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간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재산관리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종원들과 선대(先代) 도유사님께서 염원하시던 시조 춘천묘소와 표충재, 용산단 등 시조 유적지 ‘국가사적(史蹟)지정사업’을 제가 맡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문 학자들에게 두 차례나 용역을 의뢰하고 선조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유적 발굴의 증거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훌륭한 후임 도유사님들께서 어어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원 여러분! 제가 종무를 이끌어 온 6년 동안의 성과는 모두가 종원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성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일로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평산신씨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발전하여 후세에도 이어져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맡은바 소임을 대과(大過)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종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원 여러분! 그리고 대종중 고문님, 명예도유사님, 상임유사님, 대의유사님! 우환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0.

도유사 申 吉 淳

취임사(就任辭)



존경하는 70만 종원과 명예도유사님, 고문님, 대의유사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소명을 받아 평산신씨 대종중의 제23대 도유사에 선임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영광을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산신씨 대중중은 70만 종원의 구심체로 조상을 모시고 가문의 위상과 전통을 지켜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또한 선조님들이 물려주신 위훈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가야 할 책무에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선조님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더욱 빛나게 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대중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 할 것이므로 힘든 일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종원님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종사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도유사로서 시조님의 향사봉행 및 묘역을 비롯한 시조님 유적지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대중중의 재산관리 및 수익증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대중중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파종중 및 시도화수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중의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므로 대중중의 재정적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재정이 빈약한 시조님 유적지의 자립기반을 모색하고 파종중 및 시도화수회의 지원을 한층 더 늘려서 파종중과 시도화수회의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의 모든 운영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원칙의 기반위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공정하며 또한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에 전국에 계신 평산신씨 70만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시조님의 가호를 듬뿍 받으시어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0

신임 도유사 申澈秀

2020년도 제1차 재산관리위원회개최

2020년 2월 17일(월요일) 오전 11시 대중중회의실에서 근택(根澤)재산관리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참석하 가운데 제1차 재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3월 5일 매도계약이 체결된 의성임야의 매각이 2020년 2월 10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報告)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추인(追認)하고, 그간 계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근택(根澤)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로를 치하(致賀)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대중중 길순(吉淳) 도유사는 인사를 통해, 지난해 3월 5일 계약금 4억 원을 받고 매도계약을 체결한 의성임야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금년 2월 10일에 잔금 31억 원을 일시에 완납 받아 종결처리된 것은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합심 협력하여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시조(始祖)님 음덕(陰德)으로 좋은 마무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특별한 수완을 발휘해 준 근택(根澤)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그동안의 경과설명과 계약서의 검토 등을 거쳐,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산1번지와 8필지 임야 2,530,713㎡의 매각을 추인(追認)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성임야 매각의 경과를 자료화하여 2020년 총회자료에 포함시켜 총회에서 설명이 필요함을 의결하였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자산매입을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위원들이 공감하는 등의 논의가 있던 후 폐회하였다.



2020년도 제1차 제례·계보위원회 개최



금년도 첫 제례계보위원회가 2020년 2월 20일(목)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대중중 길순 도유사는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시조 장절공의 춘향제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대중중의 존재 이유 중

첫째가 시조의 향사와 묘소관리라고 강조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다.

이어서 홍균 제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초헌관으로 홍균제례위원장, 아헌관 신동석 전서공파도유사, 종헌관은 제정공파 동천 총무국장, 당상집례 문철위원, 당하집례 동원위원, 대축에는 현수 강원도화수회 부회장을 선정하고 그 외 제집사는 대중중과 강원도화수회에 일임하고, 기타 전일입제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자고 의논을 모으고 폐회하였다.

그 후 국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심각단계 격상으로 모든 행사를 자제하게 되자 대중중에서는 부득이 향사를 대중중 직원과 제례위원 및 강원도 제례위원 일부만 참석하는 소규모로 봉행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26일(목) 향사일에 대중중 길순도유사가 초헌관을, 아헌관에는 강원도화수회 동은 명예회장, 종헌관에는 현택 묘소관리소장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장학·상벌위원회 개최



금년도 대중중 표창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상벌위원회가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대중중회의실에서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대중중 길순 도유사는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표창자 선정과 장학생선발에 철저를 부탁하신다고 하였다. 이어서 봉식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위원들의 집중적인 논의와 격론 끝에 표창자 14명을 선정하고, 또 장학생은 18명을 선발하였다.

2020년 대중중 표창 수상자

▶ 대중중은 2020년 표창 수상자로 아래 종원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성 명 : 신근택(申根澤)
직 위 : 대중중부도유사, 사간공파도유사
추천기관 : 대중중
상 계 : 사간공파 34세 (을미보 9권 2241페이지)
공적사항 : 위직은 여러 직책을 맡아 투철

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유적지로서 부실했던 장군단을 2018년부터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조성하였고, 대중중 재산관리위원장으로 의성임야를 매각함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성사를 시키는 등 평산신씨 대중중 발전에 크게 기여함.



성 명 : 신동은(申東銀)
직 위 : 대중중부도유사, 강원도화수회명예회장
추천기관 : 대중중
상 계 : 사간공파 35세(을미보 10권 4180페이지)
공적사항 : 2012년 5월부터 6년 동안 강

원도화수회장직에 있으면서 화수회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여 회 발전을 크게 도모하고, 묘화 화수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시조 묘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대중중 제례정보 부위원장으로 ‘시조 장절공 제례해설집’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고증하는 등 2여년 동안의 난관을 극복하고 발간함으로써 대중중 발전에 크게 기여함.



성 명 : 신현대(申鉉大)
직 위 : 제정공파도유사
추천기관 : 대중중
상 계 : 제정공파 33세(을미보 12권 864페이지)
공적사항 : 위직은 제정공중중의 여건이

미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과중중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여 종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중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춘천시조 장절공 묘소의 향사 후 사용하는 제관들의 식사용 식탁 80개를 기증하는 등 대중중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성 명 : 신일동(申一東)
직 위 : 밀직공파 집의공중중 고문
추천기관 : 밀직공파도유사
상 계 : 밀직공파 35세(을미보 2권 137페이지)
공적사항 : 1984년 11월 밀직공파 집

의공중중 회장에 선임된 후 소중중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소중중에서는 그의 헌신적인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2001년 3월 송덕비를 건립하였고, 2008년 12월 집의공세보 발간, 2010년 12월 덕양원지 상·하권 및 열성수교 3책을 덕양서원에 소장토록 기증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계유보(1873년발행) 원본 9권을 대중중에 기증하였으며 현재는 고문으로서 과중중 발전에 기여함.



성 명 : 신호균(申鎬均)
직 위 : 현령공파 종원
추천기관 : 현령공파도유사
상 계 : 현령공파 32세(을미보 신2-4권 103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작고한 31세 영희

의 차남으로 병석중인 형을 대신하여 집안 대소사를 맡아 생활하면서 파종중과 대중중의 시제나 여러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고 있음은 물론 파종중 종원 확대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종원들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됨.



성 명 : 신 봉 균(申奉均)
직 위 : 정언공파부도유사
추천기관 : 정언공파도유사
상 계 : 정언공파 32세(을미보 6권 1371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2008년부터 6년간

정언공파종중 부도유사로 재직하면서 파조묘소의 제향을 정성껏 모셔왔음은 물론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평산신씨 최초의 족보 '평산신씨 성보' 인 병자보를 대중중에 기증하여 이후 복제하여 배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또 파종중 재산관리에도 많은 공으로 파종중 발전에 기여함.



성 명 : 신 계 만(申桂萬)
직 위 : 한성윤공파부도유사
추천기관 : 한성윤공파도유사
상 계 : 한성윤공파 31세(을미보 7권 773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형제간 우애가 깊

고 효성이 지극하며 근면하여 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퇴직(포항시청 서기관) 후에는 한성윤공파종중 상임유사와 부도유사를 맡아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숙원사업인 파조단을 조성할 때도 앞장서서 많은 성금을 모아 단을 봉축하는데 이바지하는 등 파종중 발전에 크게 기여함.



성 명 : 신 동 창(申東昌)
직 위 : 사간공파 찬성공종중 상임유사
추천기관 : 사간공파도유사
상 계 : 사간공파 35세(을미보 8권 845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사간공파 찬성공종

중 상임유사로 파 및 소종중 향사와 대중중 춘추향사를 20여년간 빠짐없이 참석하고 매사에 솔선수범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종중 제례위원으로 봉사하면서 시제 때마다 제수를 직접 진설하고 있으며, 또 제례예법과 홀기도 바르고 알기 쉽게 편집하여 종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



성 명 : 신 덕 균(申德均)
직 위 : 경북 영양화수회 총무
추천기관 : 제정공파도유사
상 계 : 제정공파 32세(을미보 14권 2978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경북영양군화수회

총무직을 1996년부터 24년간 수행하면서 헌신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종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2015년의 을미대동보 발간 시에는 수단유사로 활동하면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많은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였

고, 시조향사를 비롯하여 표충제, 용산단 향사에도 사재를 들여 많은 종원과 같이 참배하는 등 대중중과 회수회 발전에도 기여함.



성 명 : 신 선 균(申善均)
직 위 : 이상공파도유사
추천기관 : 이상공파도유사
상 계 : 이상공파 32세(을미보 14권 514페이지)
공적사항 : 위 직은 파종중 업무에 40여

년간 봉사해 왔으며 2016년 10월부터 도유사로 취임하여 부단한 노력과 솔선수범으로 종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파종중 숙원사업이던 '이상사' (재실)를 2017년 10월 건립하고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셨으며 주위에 공원모지도 조성하는 등 파종중 발전에 크게 기여함.



성 명 : 신 현 대(申鉉大)
직 위 : 용산단도유사
추천기관 : 광주전남화수회장
상 계 : 한성윤공파 33세(을미보 7권 5106페이지)
공적사항 : 위 직은 2018년부터 시조님

탄생지인 용산단의 도유사를 맡은 이후 종원들이 참배하기 쉽도록 유적지정비 및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용산단 총무로 봉사할 적엔 2006년에는 주차장 석축 보수하고 2007년에는 전라남도청과 곡성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입로 확장공사를, 2010년에는 용산단 주변에 조경작업을 실시하여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용산재 내부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유적지 쇄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성 명 : 신 재 철(申在澈)
직 위 : 서울은평구화수회장
추천기관 : 서울시화수회장
상 계 : 밀적공파 34세(을미보 2권 308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은평구화수회장으로

종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화수회의 상임유사를 맡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화수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시조 장절공 향사에 2007년에 중헌관으로, 2017년에 아헌관으로 참여하여 승조돈목을 실천하고 있는 종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음



성 명 : 신 종 길(申鐘吉)
직 위 : 경남 창원화수회 고문
추천기관 : 부산경남화수회장
상 계 : 사간공파 34세(을미보 10권 2952페이지)
공적사항 : 위 종원은 창원화수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17년간 재직하면서 종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격월간으로 등산모임을 추진,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창원시 재향군인회장으로 있으면서 화수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 종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화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



성 명 : 신근철(申根澈)
 직 위 : 강원도화수회 부회장
 추천기관 : 강원도화수회장
 상 계 : 사간공파 34세(을미보 10권 3143페이지)
 공적사항 : 위 중원은 강원도화수회 수석

부회장 및 대중중 대의유사로서 술선수범하는 숨은 일꾼으로 중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모범 중원 일뿐만 아니라 시조 향사에는 제수 고임새 작업, 제례 제집사로 봉사하며 행사 후에는 뒷정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수년 간 시조 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모범이 되고 있음.



성 명 : 신민용(申珉溶, 正言公派 34世)
 생년월일 : 2000. 9. 15
 학 교 :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학 년 : 2학년(男)
 상 계 : 을미보 6권 714면



성 명 : 신혜정(申惠晶, 正言公派 34世)
 생년월일 : 2000. 9. 1
 학 교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학 년 : 2학년(女)
 상 계 : 을미보 6권 856면

2020년도 대중중 장학생 명단

▶ 대중중은 2020년도 장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장학금(이백 만원) 중 1학기분(일백만원)을 지급하였다.(2학기분은 8월말 지급 예정)



성 명 : 신동철(申東澈, 思簡公派 34世)
 생년월일 : 1994. 1. 13
 학 교 :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학 년 : 3학년(男)
 상 계 : 을미보 8권 781면



성 명 : 신경연(申景然, 齊靖公派 37世)
 생년월일 : 1998. 8. 23
 학 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 년 : 3학년(女)
 상 계 : 을미보 14권 3029면



성 명 : 신민석(申玟席, 思簡公派 38世)
 생년월일 : 1999. 2. 15
 학 교 : 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학 년 : 4학년(男)
 상 계 : 을미보 11-1권 8270면



성 명 : 신동연(申東燕, 正言公派 35世)
 생년월일 : 1997. 11. 26
 학 교 :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학 년 : 3학년(女)
 상 계 : 을미보 6권 907면



성 명 : 신은정(申恩貞, 思簡公派 37世)
 생년월일 : 1997. 9. 12
 학 교 : 경희대학교 영어학과
 학 년 : 4학년(女)
 상 계 : 을미보 11권 4947면



성 명 : 신제학(申濟學, 典書公派 39世)
 생년월일 : 2000. 9. 27
 학 교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 년 : 2학년(男)
 상 계 : 을미보 14-2권 342면



성 명 : 신호영(申虎泳, 貳相公派 34世)
 생년월일 : 1999. 3. 23
 학 교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학 년 : 3학년(男)
 상 계 : 을미보 14권 262면



성 명 : 신정우(申淨宇, 齊靖公派 38世)
 생년월일 : 2001. 2. 3
 학 교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학 년 : 2학년(女)
 상 계 : 을미보 14권 3131면



성 명 : 신태빈(申孝彬, 判事公派 37世)
 생년월일 : 1996. 9. 5
 학 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 년 : 3학년(男)
 상 계 : 을미보 15권 1313면



성 명 : 신필식(申弼湜, 正言公派 36世)
 생년월일 : 1996. 10. 1
 학 교 :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과
 학 년 : 2학년(男)
 상 계 : 을미보 6권 661면



성 명 : 신상우(申相祐, 漢城尹公派35世)
 생년월일 : 2000. 11. 16
 학 교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 년 : 2학년(男)
 상 계 : 을미보 7권 916면



성명 : 신지연(申智淵, 正言公派 34世)
 생년월일 : 1997. 3. 8
 학교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년 : 4학년(女)
 상계 : 을미보 6권 2195면



성명 : 신민지(申旻志, 思簡公派 36世)
 생년월일 : 2000. 12. 7
 학교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
 학년 : 2학년(女)
 상계 : 을미보 8권 741면



성명 : 신혜지(申惠智, 密直公派 38世)
 생년월일 : 1998. 10. 7
 학교 :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학년 : 4학년(女)
 상계 : 을미보 2-1권 717면



성명 : 신동선(申東璇, 齋靖公派 35世)
 생년월일 : 2000. 4. 5
 학교 : 호서대학교 화장품생명공학부
 학년 : 2학년(女)
 상계 : 을미보 12권 864면



성명 : 신수경(申受暎, 思簡公派 36世)
 생년월일 : 2000. 3. 9
 학교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학년 : 2학년(女)
 상계 : 을미보 9권 2241면

[始祖配享地 巡廻4回]

도포서원(道浦書院)

- 춘천소재 장절공 신송겸장군 유적지 자료집
- 평산신씨 천년사



【도포서원 현액 : 강원도지방문화재 21호】

1. 도포서원의 연혁

도포서원은 장절공(壯節公) 신송겸(申崇謙)장군의 외예(外裔) 춘천부사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이 여러 선비들의 의견에 따라 1650년(효종1년) 춘천부 비방동(현재 춘천시 서면 방동리)장절공 묘소 밑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장절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694년(숙종20년) 장절공

의 후예인 강원도관찰사 신양(申彙)이 도포서원이 퇴락한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여 선비들과 의논하여, 현재의 위치인 도장포(道藏浦)의 고산(孤山, 춘천시 서면 박사로1148-15)으로 이전하였다. 이때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과 우정(憂亭) 김경직(金敬直, 1569~1634)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원 설치를 금하는 금령으로 비용을 공개적으로 외부에서 구할 수 없어 감영과 내·외의 후손들만의 거출로 자금이 넉넉지 못하여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다시 10여년 후 후손인 신한장(申漢章)이 춘천부사로 부임(1708년)하여 본인의 녹봉에서 엄출하여 문원(門垣:담장)과 외숙(外塾:바깥 글방)까지 건축하는 등으로 마침내 서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平山申氏文獻錄 제1편 史蹟 書院重修記) 그러나 중수기의 내용만으로는 서원의 규모나 배치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서원의 모양을 갖추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다른 서원의 규모나 구조와 같이 그 모양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시대의 서원의 규모나 구조는 일정하지 않았고 설립 주체자에 따라 규모의 대·소가 있고 배치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포서원의 규모와 배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표 조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한다.

2. 도포서원 현재 터 현황

도포서원의 터(춘천시 서면 박사로1148-15)는 현재의 춘천 시내를 중심에서 서북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한강변으로부터 약 300여m 떨어져 있다. 지금은 의암댐이나 화천댐, 혹은 신매대교를 통하여 이곳으로 갈 수 있으나 예전에는 배 이외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곳이었다.

지금은 도포서원 터 뒤편으로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금산1리 '눈높이'라는 마을을 통해 강변 쪽으로 통행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통로가 서원 남서쪽의 야산을 넘어 서원 앞쪽으로 길이 나 있었다. 이곳에 서원이 자리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곳이 춘천의 곡창지대로 예전부터 양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우두벌'과 가까이 있으며 바로 앞쪽에 나루가 있었다는 것과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도포서원 건물의 이전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서기 1650년 춘천부사 박장원이 장절공 묘역 밑에 서원을 건립하고 장절공(壯節公)을 봉안하였다. 서기 1694년 신양(申彙)이 강원도 관찰사로 왔다가 서원이 퇴락한 것을 보고 민망하게 여긴 나머지 현재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다. 춘천부사 신한장의 중수기에 의하면 서원 건립시 국가에서 모금을 금하였기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서 규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신한장(申漢章)이 춘천부사로 있는 동안 (1708~1709년)자금을 엄출하여 서원의 규모를 갖추

어 짓고 나서, 도포서원 설립의 전말을 밝히는 ‘도포서원 중수기(道浦書院重修記)’를 지었다. 도포서원은 비사액 서원으로 1868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毀撤)되게 되었다.

가) 구 도포서원 터

현재로서는 당시의 서원이 있었던 터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장절공(莊節公)묘역 아래에 사당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한장의 중수기문(重修記文)에 “박장원이 이 땅에 수령으로 와서 많은 선비들의 바램으로 인하여 비방동의 묘 아래에 사우를 창립하고 향사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당시 서원의 건물 배치나 규모가 어떠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서원 터로 추정되는 곳은 지금의 사당, 신도비각, 재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신 도포서원 터

도포서원이 있던 곳은 신매리100-1, 101번지(박사로1148-15)일대이다. 1694년경 신양(申彙)이 도장포(道藏浦)로 이전하던 초기에는 서원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다가, 신한장(申漢章)이 춘천부사로 부임(1708~9년)하면서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비로소 서원의 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중수기(重修記)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건물 체제는 사당, 강당, 동·서재, 전사청, 내외3문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01번지 도포서원 터에서 살다가 2001년에 작고한 신달수(申達秀)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 서원 철폐령이 내렸을 때 신달수씨의 증조인 진사 신건조(申建朝)가 건물을 허물고 위패를 강당이 있었던 근처의 강당봉(講堂峯)에 묻었다는 말을 조부인 신표선(申孝善)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신달수씨가 살았던 건물은 서원에서 행사를 할 때 음식을 장만하던 행랑채였다고도 하고 혹은 서원의 건물을 헐어지었다고도 한다.

터에는 사용되었던 주초석과 장대석 조각들이 흩어져 있으며, 많은 와편과 백자편이 발견된다. 서원 터는 전지(田地)로 이용되면서 모두 교란(攪亂)되어 외형상 당초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다) 도포서원의 유물

(1)도포서원 현판

현재 장절공(莊節公)묘소 아래에 위치한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道浦書院”(도포서원)이라고 크게 각자(刻字)하고 그 끝부분에 ‘上之十年丙午三月上旬日憂亭金先生六世孫義協謹書’(상지10년병오3월상순일우정김선생 6세손의협근서)라고 작은 글씨로 각자(刻字)되어 있고, 김경직의 후손 김의협(金義協)이 썼다. 제작 년도는 지금부터 230년 전인 1786년(정조1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원우(院宇)의 편액(偏額, 현판 가로180cm, 세로39cm, 두께2cm)은 서기 1976년 6월에 장절공(莊節公)묘소와 함께 강원도 지방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

어 있다.

(2) 주초석(柱礎石) 과 장대석(長臺石)

현재 도포서원 터 주변에는 여러 개의 주초석이 남아 있다. 도포서원 터에 살았다가 2001년 작고한 고(故)신달수(申達秀)에 의하면 예전에는 주변에 다듬은 초석들이 여러 개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묻히기도 하고, 근처 민가 건축용으로 사용하고자 옮겨 가거나 하여 지금은 보잘 것 없는 것만 남아 있다고 한다. 현재 서원 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신대균씨 가옥에도 장독대를 비롯하여 집안 곳곳에 주초석이 남아 있고, 이외에도 서원터 뒤쪽 쪽에도 일부 초석이 남아 있으며, 건물에 사용되었던 장대석들도 신대균씨 가옥 내에 여러 개 남아 있다. 대개 길이가 50~60cm 정도이며, 자연석을 대강 다듬은 것이거나 화강암을 치석(治石)하여 만든 것들이다.

(3) 와편·자기편 등

도포서원 터 현장 주변에는 주초석이나 장대석뿐만 아니라 많은 와편과 자기편이 발견된다. 와편은 주로 경질 회청색을 띤 무문(無紋), 혹은 창회파문(滄海波紋), 계통의 기와로 전형적인 조선시대 기와이다. 여러 종류가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 중수(重修)나 번와(飜瓦, 기와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도포서원이 갖는 역사 문화적 가치

강원도는 중앙부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민의 언어와 생활문화 등의 많은 차이가 있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강릉, 원주, 춘천의 삼각형으로 강원도의 축을 이루고 있고, 강원도 문화도 이 세 도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강릉에는 오봉서원과 송담서원이 있었고, 원주에는 칠봉서원과 도천서원이 있었으며 춘천에는 문암서원과 도포서원이 있었다.

영동지방에서는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선현선사를 봉안하고 그 분들을 존송하며 아동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던 정신적인 지주요 인재양성의 요람이었던 오봉서원과 송담서원 2개소가 모두 복원되었으나 영서지방인 춘천의 문암서원이나 도포서원, 그리고 원주의 칠봉서원이나 도천서원은 아직 하나도 복원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영동문화와 영서문화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송겸(申崇謙)장군의 충의정신은 고려시대 국가를 지키고 민족을 보호하는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으며, 이 충의정신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두문동 72인의 충의정신으로 계승되었고, 이 정신은 사육신·생육신의 충의정신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정신으로 승화되었고, 19세기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으로 연결되었으며 한말 의병정신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절공(莊節公)의 충의정신은 조선왕조의 충의정신과 의병정신의 연원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장절공(莊節公)을 배향한 도포서원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파종중 · 화수회 소식

정언공파 종중

- 총회를 대신하는 상임유사회 개최 -



[신임도유사 문철]

정언공파 종중에서는 지난 3월 10일 종규에 의하여 총회를 대신한 상임유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35명의 상임유사회 위원 중에서 30명이 참석하고, 4명이 위임한 이번 회의에서는 개회선언과 성원보고에 이어 철수(澈秀) 도유사의 인사말에서 현 상황이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어서 본 상임유사회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전 종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의안 1호, 종규에 의한 총회를 대신하는 상임유사회의 승인, 의안 2호, 2019년도 결산안, 의안3호,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의안4호로 임원을 선출하였다.

먼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종규에 의한 상계(上系)가 분명한가에 대하여 총무가 확인한 결과를 발표한 후 임원은 종규에 따라 9개 문중에서 각각 추천된 위원들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과 간사를 먼저 뽑고, 이어서 임원 선출 방법을 협의한 후, 도유사 1명, 부도유사 3명, 감사 3명을 선출한 후 지수(之秀) 의장이 도유사 문철(文澈), 부도유사 봉균(鳳均), 석규(奭圭), 현규(鉉圭), 감사 장균(莊均), 언권(彦權), 동국(東國)을 발표하였다. 또 이 자리에서 봉균(奉均) 前 부도유사의 대종중 표창 수상이 발표되어, 상임유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금년도 대종중 장학금을 우리 종중에서 4명이나 받게 되었다는 발표에 우수한 후손을 둔 우리 파종중 종원들을 더욱 흐뭇하게 하였다.

이날 인천광역시 교육삼락회장에 취임한 중균(重均) 전 교장선생님의 기념품, 그리고 목사공(牧使公) 종중의 현진(鉉鎭) 회장이 수건을 선물하였다.

표충서원 향사 봉행



2020년 4월 5일(한식일) 고려개국 일등공신 신승겸 장군의 순절지 대구 표충서원에서 입근(立槿)1093년째 향사 일을 맞이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괴질(怪疾)로 인하여 전 국민의 감염방지와 개인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몇 사람만 간소하게 진행 하였습니다.

이날 헌관은 표충서원 현문 도유사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정성을 다하여 봉행하였다.

덕양서원 춘향제

(코로나19 여파로 20여명의 본손 만 참석)



곡성의 성황신이며 고려개국 1등공신인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2020년 춘향대제가 3월 5일 목요일에 덕양서원종중 도유사 신인현 주관으로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소재 덕양서원내 덕양사에서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이번 춘향제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431년 동안 빠짐없이 유림들에 의해 거행되어왔던 향사를 정부방침에 따라 유림

들이 불참한 가운데 20여명의 본손들만이 참석해 간소하게 치렀다. 행사는 간소화 된 흥기에 따라 치렀지만 평산신씨 시조이신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충과 절의의 정신을 기리기에는 추호도 부족함이 없었다.

유림들이 불참함에 따라 모든 제관을 본손이 맡았는데, 초헌관은 근택(사간공파 도유사)씨가 아헌관은 표균(진사공파 도유사)씨, 종헌관은 현대(용산단 도유사)씨가 각각 맡았으며, 그 외 모든 제관을 본손이 맡아 약식 흥기에 따라 40분 간 엄숙히 거행됐다.

본손 참제자로는 덕양서원 인현도유사를 비롯하여 근택(사간공파도유사, 대종중 부도유사), 표균(진사공 도유사), 현대(전 덕양서원도유사, 대종중 부도유사), 형식(광주-전남 화수회장), 세원(전 판사공파 도유사), 현대(용산단 도유사), 완철(충북 화수회장), 하섭(전 장군단 도유사), 상남(전 장군단 도유사 및 청장년회 회장), 웅철(전 장군단 도유사), 유섭(덕양서원 부도유사), 신해순(고창, 중국 길림성 출신, 36세손), 동연(고흥화수회 총무)등 덕양서원 임원, 곡성군청 문상연주무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왕대사 하신 장절공의 정충대절 정신을 기렸다.

유근기(곡성군수), 길순(대종중 도유사), 현문(표충재 도유사), 흥현(전첨공 도유사), 정현(백은공종중 도유사), 현년(전 광주전남화수회장), 동준(곡성군청 관광과장)등은 성금을 보내왔다.

한편 평산신씨 시조 약강지인 곡성에 위치한 덕양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2차례 시행하는데 이 향사는 충과 절의의 상징이며 평산신씨 시조이

신 장절공 신승겸장군에 대한 추승으로, 43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유림과 본손들에 의해 전통적인 유교 제례로 매년 춘·추향사로 지켜 내려오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조상에 대한 숭배와 국가에 대한 충과 절의 정신이 시들어 가는 요즘, 각박한 세태를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행사로 평가 받아오고 있다.

평산신씨 시조유적지인 덕양서원은 1589년 선조22년에 곡성현감 신옥과 전라도관찰사 이광의 노력으로 지역유림과 함께 창건한 우리나라 초기 서원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월봉서원(1578년 창건)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전남지역 3대 사액서원이다. 또한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오직 장절공 한분만을 배향한 전국 최초의 서원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많은 서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들 서원들은 대부분 학자들을 배향 인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장군을 지낸 한분만을 배향한 서원은 전국 어디에도 없기에 덕양서원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더하며 사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1981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56호로 지정되었으며, 1695년 조선 숙종21년에 사액서원으로 국가가 지정하였다.

향후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덕양서원 춘향제 제수비용 및 성금수입 내역 ◀

지출내역(원)		수입내역(원)	
제관천정 공문발송	13,400	대중중	300,000
제관천정 관계자 거마비	570,000	곡성군청	500,000
제관명장 안내문발송비	29,510	표충제중중 현문 도유사	150,000
제관천정 화랑국 식대	136,000	백은공중중 정현 도유사	200,000
한지구입	40,000	진사공중중 표근 도유사	100,000
전체행사안내장 발송비	144,760	사간공중중 근택 도유사	100,000
풍년상회 제수품구입비	168,000	신현년 전광주전남학회장	100,000
해풍상회 어해 제수품	80,000	부정공중중 근택 도유사	100,000
중앙식육 녹해 제수품	30,000	용산단중중 현대 도유사	300,000
광성상회 마스크, 장갑 등	30,000	신대군 (서울)	200,000
옛날도종국 제수품	40,000	판사공중중 세원 전 도유사	100,000
흥신상회 기타 제수품	12,000	판원사공중중 근택 도유사	100,000
곡성오곡 농협마트25점	140,000	충북학회 완철 회장	100,000
광주향교 유림초청장	5,320	신대군 (남원)	50,000
행사지원 차량 유류대	140,000	신상남 전 장군단도유사	100,000
제관복 및 이불 세탁비	400,000	신동연 고흥회수회 총무	100,000
제물준비 팀 중식대	33,000	신우섭 고창, 덕양서원부도유사	100,000
제단 생화 봉헌	15,000	신동준 곡성군청 관광고장	100,000
행사준비비(저류등 구입)	81,200	장군단중중	300,000
전일입제 중식대(근택)	47,000	신동식 (광주)	50,000
덕양서원 관리소장	150,000	광주·전남회수회 형식 회장	300,000
행사준비비 거마비 1명	50,000	신영철 전 장군단도유사	50,000
전일입제 석식대	156,000	신혜순 고창, 길림성출신	230,000
행사 당일 조식대	110,000	신동원 장성회수회장	50,000
행사당일 중식대	230,000	신동현 전참공 도유사	100,000
오곡 농협 음료수 구입	5,420	신현성 전 장군단 도유사	50,000
행사 후 임원회의 식대	99,000	신현년 전 덕양서원도유사	50,000
전일입제 야식 (차일)	100,000	신영환 (광주)	100,000
관계기관 방문 음료대	28,800	신동우 (광주)	50,000
		신순국 (순천)	50,000
		신창일 (광주)	100,000
지출 합계	3,084,410	31명 소 계	4,280,000

울리사(栗里祠) 향사(享祀) 봉행



2020년 4월 4일(토, 음력 3월 伸丁日) 11:00 충남 서천군 비인면 소재 울리사(충남 문화재 제303호)에서 종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향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요원만 참여하여 봉행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운수감공과중중 재식(載湜, 34世) 신임도유사가 초헌관을, 아헌관에는 광주 용환(문희공과 35世), 중헌관에는 귀섭으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울리사(栗里祠)는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승겸장군을 비롯하여 13세 현(賢), 14세 혼(琿), 15세 대재학공과 조 연(演), 운수감공과조 15세 기(淇), 운수감공과 23세 철(澈)과 오(澳)등 7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이사와 관련하여 평산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16세 신용(申龍, 운수감공과조 申淇의 아들)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울리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8년 다시 세워졌으며 향사는 매년 음력 3월 중정일에 봉행된다.

울리사(栗里祠)는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승겸장군을 비롯하여 13세 현(賢), 14세 혼(琿), 15세 대재학공과 조 연(演), 운수감공과조 15세 기(淇), 운수감공과 23세 철(澈)과 오(澳)등 7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이사와 관련하여 평산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16세 신용(申龍, 운수감공과조 申淇의 아들)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울리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8년 다시 세워졌으며 향사는 매년 음력 3월 중정일에 봉행된다.

덕양서원 유적지 베트남 정부에서 공물(꽃병) 봉납(捧納)



[제단에 비치한 꽃병]

베트남 국가의 문화체육관광부 응우옌응옥티엔 장관은 지난 연말 곡성 덕양서원 (도유사 신인현)에 용 문양이 새겨진 베트남 전통 도자기 (사진)를 베-한 친선협회 사무총장 응우옌티투짱 외교관을 통해 공물로 보내왔다.

이는 2016년 11월 27일 덕양서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학회 (회장 안경환 조선대 교수)가 주최한 국제학술 발표대회에서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주제로 6편의 논문 발표와 종합토론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것이다. 이를 전해온 응우옌티투짱 외교관은 “동절기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덕양서원 관계자와 참석해주신 종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인현 도유사는 공물을 받고나서 “베트남 정부가 잊지 않고 공물을 보내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공물(꽃병)을 덕양사 제단에 비치하고 베트남 정부의 고귀한 뜻을 오랫동안 간직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학회에 참석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국립 하노이대학 등 베트남 교수들은 발표책자 뒤편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수록된 “신승겸 장군의 생애와 충절정신”이라는 제목의 5페이지 글을 읽고 한국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음을 알게 되었으며, 430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덕양서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국립하노이대학 동양학대학장 (한국사전공) 레딘찐 교수가 베트남 전국 대학에서 한국사 교재로 사용할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덕양서원과 용산단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와 사진을 가져가면서 “훌륭하신 장절공 신승겸장군을 한국사 교재에 반드시 수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베트남학회 회장 안경환 조선대 교수는 “한·베 문화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일로써, 위왕대사 하신 장절공 신승겸장군의 충과 절의의 정신이 베트남 전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물을 보내주신 베트남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였다.

행사에 앞서 각초 주지스님 등 2분이 참석하시어 추모다래제로 시조님의 거룩한 정신을 높이 찬양하는 기도가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본손들의 제례가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동언도유사가, 아헌관에는 현대 용산단도유사, 중헌관에는 인현 덕양서원도유사, 축관에는 동길 광주전남화수회 상임부회장, 집례에는 동원 장군단부상임도유사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수 인원만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날 총회에서는 장군단도유사로 동언을 선출하였고, 부상임도유사에는 현덕, 현대, 인현, 형식, 동원(옥봉) 등 5명을 선출하고 감사에는 사현, 형철이 연임되고, 사무국장으로 창일, 장군단 성역화 사무국장에 남원 동복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 장군단 표성금 내역서 ◀

충북화수회 2020년도 정기총회



충청북도 화수회(회장 완철)는 2020년 2월 22일(토) 11:00시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에 있는 가화한정식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50여명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화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이어서 2019년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으며 대중중 대의유사도 신현욱에서 신동원으로 변경하는 등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2부 순서로 종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오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장군단 향사 봉행

장군단 종중(도유사 신동언)에서는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11시에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장군단에서 종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

성명	금액 : 만원	성명	금액 : 만원
용산단도유사	50	상남 전 도유사	10
덕양서원도유사	50	배식 고희화수회장	10
광주전남화수회	50	원균 종원	10
장군단도유사	50	유섭 고희화수회장	10
대중중	20	동원 상임부도유사	10
현덕 상임부도유사	10	홍섭	10
동립 전 영광화수회장	10	동복 성역화 사무국장	10
동운	10	동식 덕양서원 사무국장	11
성삼 전 광산화수회장	10	동현	5
기안 현 광산화수회장	10	현영 광주	5
민철 대전충남화수회장	10	동곤 고택	5
동길 부회장	10	형철 정읍	5
총계			391

龍馬背頭跑

(용마배두구) 용마는 두상을 등지고 달렸다

- 想當年無痕(상당년무흔) - - 옛 흔적 더듬으며 -

제정공과구미문중 申 瑢 澈

公山魄載盡力跑 (공산백재진력구)	팔공산 기백 싣고 힘껏 달렸도다.
大伽在河解露脖 (대가재하해점발)	고령 냇가에서 목을 적시고
居烈鬪野背地裏 (거렬활야배지리)	거창 넓은 들 뒤로 하며
古龍南嶽着蟾江 (고룡남악착섬강)	남원 지리산 섬진강 따라
桐裏脚鄉着武場 (동리각향착무장)	동리산 자락 고향 무예만마한 곳
節公立壇馬邊護 (절공립단마변호)	장절공 흉단 용마가 지키는 듯
白雲飄間舍着陽 (백운표문합착양)	두둥실 흰 구름 사이 태양을 머금고
着深溪林芝草香 (착심계림지초향)	깊은 계곡 우거진 숲지초 향기
近處聽到嗥鳴聲 (근처청도봉명성)	가까이서 들려오는 우렁찬 새 소리
那聲公山氣魄聲 (나성공산기백성)	그 소리... 팔공산의 기백 소리!

越千今天節馬喊 (월천금천절마함) 천년초월 지금도 장절공 용마 함성
裏頭像智是綿綿 (리두상지시면면) 두상(장절공)의 지혜는 이어지면서
衛半島統巍然屹立 (위반도통외연립) 반도의 통일지킴이로 우뚝 솟아
有太陽就守民族 (유태양취수민족) 태양이 있는 한 우리 민족 지키리라

※ 신라, 고려초 지명 : 公山(팔공산) 大伽(고령) 居烈(거창) 古龍(남원) 南嶽(지리산)

조선4대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과 문학 ①

신 표 균 (시인, 진사공파중종 도유사)

1. 출생, 학문, 입조

상월계택(象月谿澤)이란 이름으로 명성을 떨친 조선 중기 이정구(李廷龜),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더불어 신흠(申欽)은 조선 4대 문장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칭송되어 오고 있다. 그는 생전에 무려 2036 수의 시와 30 수의 시조를 짓고 시문집 38권을 비롯한 63여권의 저서와 편서를 <<상촌집>>으로 엮어 출간, 그 문명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떨치고 있다. '상월계택'은 象村(신흠), 月沙(이정구), 谿谷(장유), 澤堂(이식)의 호 첫 글자를 따서 작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명종21년(1566년) 1월 28일 한성부 장의동 사저에서 승서(개성부 도사)를 아버지로, 의정부 좌참찬 은진 송기수의 따님을 어머니로 하여 고려 개국 공신 태사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20세 손으로 태어났다.

일곱 살 되던 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여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당시 장서가로 널리 알려진 외조부 참찬공 송기수의 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많은 책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글공부에 전념하게 되어 일찍이 15세에 스스로 학문의 목표를 명예에 관심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평소 엄숙한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장중한 몸가짐으로 효제충신의 정신을 근본으로 삼았다. 같은 해에 청강 이제신의 집에 장가들었는데 당시 장인인 청강이 주역에 해박하기로 명성을 떨칠 때라 배우기를 청하자 “노부는 감히 스승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할 만큼 그의 학문의 경지가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18세 때 율곡 이이의 죄상을 삼사가 논하는 사건이 벌어져 외숙부인 대사간 송응개가 보내온 탄핵문을 보고 “율곡이 사람의 두터운 촉망을 지고 있는데 이처럼 공박함을 옹지 못하다”고 하자 응개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전해 온다. 그 후로 그는 ‘율곡의 사람’으로 찍히게 되었다.

20세에 진사시, 21세에 별시 문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에 배속되자마자 경원 훈도, 광주 훈도로 밀려났다가 23세에 사재감 참봉에 올랐으나 곧바로 파직을 당한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과 함께 다시 서용되어 사헌부 감찰, 병조좌랑, 성균관 직장을 거쳐 1594년 순안어사, 1596년 도원수 권율의 종사관으로 재직하다가 성균관 사성으로 임명되고 1599년 홍문관 전한으로 승진했다가 임란이 끝난 뒤 장남 익성이 정숙 옹주와 혼인함에 따라 승정원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통정대부로 승격한 이듬해 우부승지-우승지로 잇달아 승차했다.

그의 나이 35세에 사간원 대사간, 이조참의에 이르고 1601년 <<춘추제씨전>>을 함찬한 공이 인정되어 가선대부에 오르며 예문관 제학이 되었다. 이어 예조참판을 거쳐 1605년에는 승정원 도승지에 임명 되었다. 이때 명나라의 한림학사 주지번과 급사중, 양유년이 원손의 탄생과 관련하여 조명을 갖고 조선으로 와서 반포 하였을 때 의주에 영위사로 나갔으며 또한 “황화집”의 서문을 지으라는 명을 받고 그해 여름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어 도총관을 거쳐 경기관찰사와 병마수군절도사, 개성부유수, 예조판서, 사헌부 대사헌 지중추부사에 차례로 제수되었다. 또한 임란중에 소실된 실록의 복간 작업에 여러 학자들과 같이 참여 하기도 하였다.

2. 상촌의 문학

신흠은 1613년 4월 사형수 박응서가 이이침 등의 사주를 받아 옥중에서 상소하여 인창대군을 용립하려 역모를 했다고 광해에게 고하여 계축사화가 일어나자 ‘유교7신’(선조의 유명을 받은 7신하)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석방됐지만 삭탈관직 당하여 김포 (지금의 인천시 서구 대곡동)로 낙향하여 초옥에 ‘하루암(何陋菴)’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문학에 심취, 전리생활을 시작했으나 1616년 조정에서는 인목대비 유폐문제가 거론되면서 다시 유교 7신인 한응인, 서성, 박동량 등과 함께 ‘4홍’으로 지목되어 1617년(광해9년) 춘천으로 유배를 가서 5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화도시(和陶詩, 조선시대 시골의 모습을 노래한 시의 한 장르로서 도교적인 사상으로 자연을 읊은 시. 매월당 김시습, 상촌 신흠, 문곡 김수항, 둔와 임수간 등의 화도시가 유명함) 210여 수를 비롯하여 ‘춘성록’, ‘구정록’, ‘야언’, ‘휘언’ 등의 수 많은 글을 썼다. 상촌의 시 한 편을 먼저 옮겨 본다.

허물이 없으려면

자신의 허물은 보되 남의 허물은 보지 않는 자는 군자다
남의 허물은 보되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는 자는 소인이다
진정으로 성실히 나를 단속한다면
자기의 허물이 날마다 눈앞에 드러날 것인바
어느 곁에 남의 허물을 살피겠는가
그러므로 남의 허물만 살피는 자는
자신을 단속함이 성실치 못한 자이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는 반면 남의 허물을 알아채고
나의 허물엔 입을 다무는 반면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허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자야말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느 시대가건 적폐 없는 시대가 있을까 만든 내 허물과 내가 속한 집단의 적폐를 먼저 알아채고 청산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의 세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상촌은 1621년(광해13년)에 사면되어 김포로 돌아와서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2년 동안의 칩거 생활 중에 자신의 자편고를 ‘상촌고(象村稿)’라는 이름으로 저서까지 저술했는데 입조기 저술(전고) 8책, 귀전 후 저술

(후고) 2책, 춘천 유배지에서 저술(속고) 4책, 은방 이후의 저술(별고) 6책, 내고 1권, 외고 1권, 여집 3권, 만집 6권 등 총 38권을 저술 하였고 이를 큰아들인 동양위 익성이 편정하여 장유와 김상헌에게 서문을 받아 간행하였다.

그의 저서와 편서로는 시문집 38권(시 2036 수, 시조 30 수)과 잡서 2권, 휘언 6권을 <<상촌집>> 본집으로 편찬하고 <<아언>> 2권과 독립적인 저술 15권 등 부록을 포함하여 다섯 부분으로 편성하였고 총 63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펼친 외에도 <<현현선생 화도시>>, <<낙민후기>>, <<고려대사장절신공충렬비문>>, <<화화집령>>, <<승국유사>> 등을 집필하여, 그야말로 조선 4대 문장가로서의 명성을 오늘날 까지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신표균 약력

☞ 186호에 이어집니다.

경북 상주 출생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 졸업(문예창작 전공) 한국문인협회 달성지부 회장 역임(현 고문) /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현) 비영리법인 도동시비동산운영회 회장(현) / 仁象(신인상) 등단 시집: 『여레미로 본 세상』 외 논문: 『김명인 시의 길 이미지 연구』외 / 대통령 표창: 국민정신교육유공

씨족공동체(氏族共同體)의 중요성



대종중고문 신 동 진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끼리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각종 이름 모르는 식물들이 군집(群集)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야생동물

들의 집단행동을 보며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인간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회 공동체는 어떠한 인연(因緣)이나 계기(契機)가 있던지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공동체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자생조직 공동체이며 지연(地緣)에 의한 호남(湖南)향우회, 학연(學緣)으로 고대(高大)교우회, 군인들의 해병(海兵)전우회는 강하기로 유명한 공동체이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자생공동체를 보게 된다.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건전한 공동체의 운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씨족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전통적인 결성체(結成體)라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다. 우리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윤리의식이 확고한 대가족제도와 씨족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없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가족으로 연계된 씨족제도는 서로 함께하며 협력하고 도덕적 규범이 생활화되어 질서 의식을 갖게 하였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용서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며 혈연의 끈으로 이어진 동족이라는 따뜻한 정이 있기에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 강한 응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꾸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온 것은 독특한 가족제도와 씨족제도가 뒷받침되므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지정된 날에 한자리에 모여 향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儀禮)행사라기 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종원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며 도덕성 향상과 충효의 정신을 기르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만남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게 되며 종원들의 생각을 함께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을 찾게된다. 씨족공동체의 발전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이므로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키며 가꾸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각종 향사(享祀)와 화수회(花樹會)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여 씨족공동체를 성실하게 운영하므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

생활정보 - 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사변을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 멸실 등으로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등본상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다. 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지난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1993년, 2006년 총3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도시 산간이나 시골에는 실제 소유자와 서류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자녀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서류가 복잡해져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효력을 갖는다고 하니, 그동안 소유권 이전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권리를 되찾기 바란다.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해 적용 되고, 현

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 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제한하고 있다.

-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 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199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이다.

신청절차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청(시, 군, 구청)에 신청하려는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는 시, 구, 읍, 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 관청이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야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지면 콜 센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에 문의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여부 알리기

- 자가 격리자 행동수칙

1. 감염 전파 방지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출입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담당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등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용 수건과 식기류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6. 손 씻기 등 건강수칙 지키기
7. 격리자는 의료인·방역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건강한 생활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

▶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변형된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우려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원들께서는 절대로 느슨하게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동지침

1.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기
3.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4.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이상 건강거리 두기
5.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6.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행동지침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2. 다른 사람과 2m이상 간격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3.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 사용하지 않기
4. 컵,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5.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6.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지침

1. 직원좌석 간격 확대,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2. 출장 외부회의 취소하고 영상회의 등으로 대체하기
3. 직원 및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4.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 매일 접촉하는 환경 표면 소독
5. 매일 2회 이상 환기, 필요한 위생 물품 비치
6.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함
7. 매일 발열체크, 근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유증상자 행동수칙

1.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기

인사

▶ 신임 상임유사



- 正言公派 宗中 都有司
- 申文澈(34世), 1946年 2月 5日生
- 서울 대동초등학교 교장
- 현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장
- 2020. 4. 1자

2020년 5월 ~ 7월 행사 안내

- 5월 5일 : 신익희 선생 63주기 추모식
- 7월 20일 : 186호 종보 발행 예정

종보에 게재할 원고 모집

- 시, 수필, 콩트, 기행문 등 문예작품 (원고지 10매 이내)
- 선조 및 종사에 관한 글, 종중행사, 미담(美談) 등
- 채택된 원고만 게재용으로 활용 (문인협회 등단자 우선함)
- 보낼 곳 : 평산신씨대종중 (이메일: pyongsan777@naver.com)

“알림”

연재하던 [신익성의 금강산 유산기]는 지면 부족으로 186호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종보는 2020년 7월 20일 발행 예정입니다.

2020년도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1. 1 ~ 4. 20)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도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Table listing individual donors and amounts, including 신준섭, 신현부, 신형선, etc.

파 종중

Table listing family association (pa) donors and amounts, including 정언공파, 군수공파, etc.

소 종중

Table listing smaller family association (so) donors and amounts, including 사간공파, 사간공파, etc.

시도 화수회

Table listing regional association (si-do) donors and amounts, including 부산경남, 인천시.

시군구 화수회

Table listing city/county/district association (si-gun-gu) donors and amounts, including 경주시, 서울마포구, etc.

총계 4,676,056

Information box containing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Distribution criteria and donation amoun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종보 성금' (Donation account).

인터넷으로 나의 족보 보기

인터넷족보 대중중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친회원이 되시면 『족보보기』에서 나와 가족의 족보를 볼 수 있으며, 신규등재, 수정, 변경, 추가, 삭제 등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pyeongsan.com

'종원동정' 란 이용 안내

대중중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종보에 종원 동정 란을 통하여 시조 장절공의 후손들의 사회 활동 상황을 접수하여 등재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방 법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 (수훈, 자격증 취득, 합격, 직위취임, 선행 등)을 대중중으로 보내면 됨.
보낼곳
우 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eongsan777@naver.com
홈페이지 : http://www.pyeongsan.com